



대가야 역사의 숨결, 고령의 바이엘 대리점 고령바이엘 동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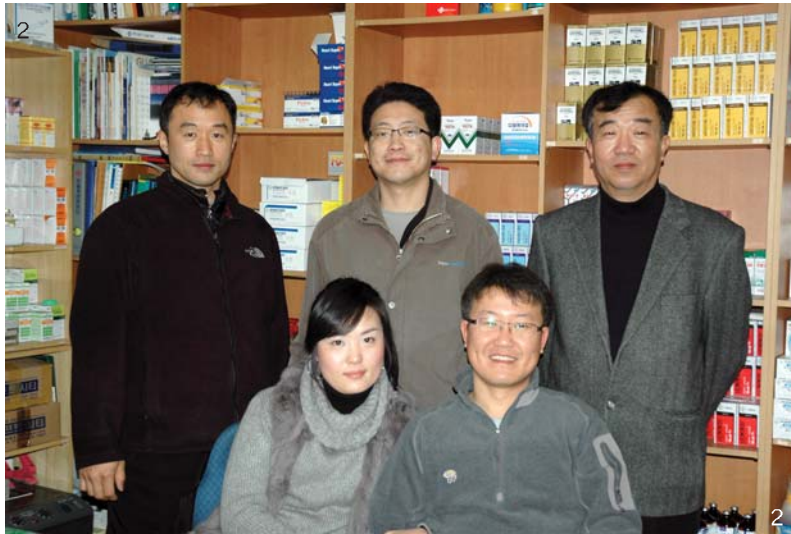
취재/홍보실 김익겸이사

고령은 옛 대가야가 자리잡고 있던 땅이다. 대가야는 1400년전 쯤에 망했지만 그 서울이었던 지금의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고령군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합천군의 가야면, 아로면, 덕곡면과 거창군의 일부 지역에는 그 시대의 유적과 전설이 많이 남아 있다. 잇달아 가야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가야시대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곳에서 겨우 어렵스럽게 엿볼 수 있을 따름으로 우리 역사에서 아직 전설의 시대로 꼽힌다. 고대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있던 부족들이 점차고 부족국가의 형태를 보이면서 여섯 가야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김해 지방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진주 또는 상주군 합창지역의 고령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이다. 대가야는 서기 42년 신라의 유리왕 18년에 이진아시왕이 세운 부족 국가로 서기 500년쯤부터 그 세력을 떨쳐 금관가야가 사라지고 난 뒤로 침체해 있던 가야 역사의 새로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신라와 힘을 겨루기에는 끝내 힘이 모자라 16대 임금인 도설지왕(562년) 때에 여러 가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신라에 정복당함으로써 가야 역사의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아직도 낙동강 물길을 이용해서 고령군에 이르렀던 옛길의 흔적이 고령읍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산 기슭에까지 남아 있다.

고대 대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와 전설의 고장 고령의 바이엘 대리점 고령바이엘 동물병원을 찾았다. 고령바이엘 동물병원의 남윤호 원장은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바이엘 마케팅부에 입사 오랜 기간 경북지역담당 수의사로 근무하면서 임상 경험을 두루 겪으면서 지역 양축가들과 신뢰를 쌓아왔다. 평소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업무적으로 아무지고 깔끔한 남윤호 원장은 “저는 아직도 1





1. 경북 고령의 바이엘 대리점 **고령바이엘 동물병원**

주소: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32-21
전화: 054) 956-8575
팩스: 054) 956-8576

2. 고령바이엘 동물병원의 **바이엘맨들**
사진 좌로부터 바이엘 지역담당 김동현
수의사, 정혜지 경리실장, 남현호 영업부장,
남윤호 원장, 지구부장 황인갑 수의사
순이다.



3. **대가야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순장묘인 지산동 44호를 재현하여 당시의 무덤 축조 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 모습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과 지산동 고분군 및 고령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 곳에 전시함으로써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가야 역사관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대가야 전문 박물관이다.

차산업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는 사양관리나 질병관리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더 나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늘 함께 합니다. 노력하고 행동하면서 동거동락하는 마음으로 농장관리에 임합니다. 제2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의 저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거래농장 모두 성공 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될 작정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현재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소비 위축과 수입 축산물의 시장점유로 더욱 더 어려워진 우리 축산업계의 비장함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고령바이엘 동물병원에서는 바이엘만의 장점인 빠르고 정확한 임상병리 진단시스템과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수준높은 서비스를 통해 농장 생산성을 높혀나가 고령 지역 축산발전의 중심이 되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